1. (가), (나), (다)는 모두 '아름다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자연미와 인위미 중 무엇이 중요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가)는 자연미와 인위미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자연미만을 긍정하며 인위미는 부정하고 있다. 매화의 자연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인화가들에 의해 창조된 인위미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매화의 가지를 자르고 끈으로 동여매 휘게 하는 인간의 작업이 매화를 죽이는 것이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매화로 살도록 했다.

이와는 달리 (나)는 자연미와 인위미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둘의 조화와 상호보완성을 강조하여 두 아름다움을 모두 중시했다. 무량수전이라는 건축물은 인간의 기술이 만든 인위적인 것이지만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건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인위미를 가진 건물은 주변의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어 순리의 아름다움도 보인다. 건물의 인위미와 주변경관의 자연미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더 부각시키는 관계이며, 이를 통해 인공물인 무량수전 건물에도 자연미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는 자연미와 인위미에 대한 위의 두 관계가 모순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르네상스 시대 궁정 여성들의 우아함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아름다움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움은 사실 다 계산된 연기라는 점에서 인위성이 있다. 자연미처럼 보이는 것의 이면에는 인위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위미와 자연미를 분리하여 자연미만 높게 사는 것이었기에 (가)의 견해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여인들의 행동에는 자연미와 인위미가 공존했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같았던 것이다. 외면적 자연미가 결국 내부적으로는 인위미였다는 점에서 두 아름다움이 상호보완적으로도 볼 수 있다.

2. (라)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미를 지닌 다이아몬드 원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를 가공하여 인위미를 드러낸 다이아몬드가 비교되고 있다. 이것들의 의미는 여러 관점에서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이나 문화기술적 측면, 미적측면 등에서 보자는 원석보다는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된다. 인간의 능력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돌맹이에 불과한 원석을 가공하여 신비로운 빛을 내는 보석을 만들어낸 것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공하는 기술력의 수준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미적, 경제적 가치는 달라지는데,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그런 점에서 보통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원석 자체는 거래되기도 하지만 그 가격이 가공품 다이아몬드보다 매우 싸며, 인간의 미적 기술적 노력이 가해지지 않았기에 다이아몬드보다 문화기술적 가치도 낮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역사적 측면, 지질학적 측면에서는 우너석의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다. 원석은 오랜 세월 이전의 지질특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어 연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공된 다이아몬드의 인위미는 이런 순수한 학문적 가치를 담지 못한 것이 되므로 오히려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

자연미와 인공미에 대해서 이런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의 견해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 (가)는 자연물인 매화를 인위적으로 가공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다. (라)의 원석을 더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를 볼 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가)의 필자는 자연 생태를 중시하는 환경적 관점, 인간과 자연의 본질을 중시하는 환경적 관점, 인간과 자연의 본질을 중시하는 윤리적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에서 다이아몬드를 더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가)의 견해를 비판할 수도 있다. 매화를 변형시켜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일은 예술미와 기술미 등의 인위미를 보여주는 일이다. 또한 잘 만들어진 분재의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처럼 경제, 기술, 문화적 측면 등에서는 인위미의 가치도 중시하기 때문에 또 다른 평가도 가능한 것이다.